
		<b>보 도 자 료</b>		수도권매립지 종료		
		배포일자 2021년 6월 24일(목) 총 2매	 환경특별시 인천			
담당 부서	대기보전과	담당자	• 대기정책팀장 정우영 ☎440-3501 • 담당자 김정아 ☎440-3503			
사진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없음 <input type="checkbox"/> 있음		참고자료		
		<input type="checkbox"/> 없음 <input type="checkbox"/> 있음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없음 <input type="checkbox"/> 있음		
보 도 시 점		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인천시, 제조기업 압송시스템 설치비 지원

- 전국 최초 압송시스템 설치 보조금 지원을 통한 미세먼지 감축 추진 -
- 건설자재 제조업체 26개사 · 인천시 화물자동차 운송사업협회 참석 -
- 지속적인 대기환경정책 추진으로 깨끗한 공기질 확보 위해 노력할 것 -

인천광역시(시장 박남춘)는 6월 24일 관내 건설자재 제조업체 26개사 및 인천시 화물자동차 운송사업협회 관계자 등과 함께 ‘압송시스템 개선사업’ 지원시책 간담회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압송시스템 개선사업’은 건설자재 제조업 공정 중 벌크차량 엔진 압송방식을 유류(경유) 사용 방식에서 전기식 블로워 방식으로 변경함으로써 대기질 개선에 기여하는 목적으로 올해 인천시에서 전국 최초로 시행하고 있는 지원 사업이다.

\* 압송시스템이란 시멘트벌크차량 등에 들어있는 원자재(시멘트 분말 등)를 사일로(저장시설)로 운송할 때 벌크차량탱크에 공기를 불어넣어 그 압으로 원자재(분말)를 사일로(저장시설)로 운송하는 방법

이날 간담회는 압송시스템 개선사업이 대기환경개선 효과가 확실하고

압송시스템은 시설투자비의 40%이상, 벌크차량은 연결 장치 부착비의 60%정도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을 설명하고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개최됐다.

제조기업 압송시스템(전기식 블로워) 설치비 지원은 사일로별 최대 900만 원이며, 벌크차량의 압송시스템 연결 장치 부착 비용 지원은 최대 30만 원이다.

시는 압송시스템 개선사업을 통해 미세먼지(PM), 질소산화물(NOx) 약 97%, 이산화탄소(CO<sub>2</sub>) 약 49%에 해당하는 대기오염물질을 줄일 수 있으며, 경유 대신 전기를 사용하게 되어 압송 비용도 절약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유훈수 시 환경국장은 “이번 간담회를 통해 건설자재 제조업체의 참여 및 압송시스템 활성화에 일조하게 되기를 바라며, 지속적인 대기 환경정책 추진으로 깨끗한 공기질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다” 고 말했다.

※ 관련 사진은 행사(10시) 종료 후 인천시 홈페이지 '보도자료'에 게시될 예정입니다.